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SEPTEMBER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25



Peru Andes Trekking

등산은 산 정상을 향하고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6,000m 급 고봉이 많은 Peru Andes 산악지대에는 산군(山群)을 중심으로 4,000-5,000m 고소지역을 10-12일에 걸쳐 걸으면서 설산, 빙하, 호수로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빙하호수 지역에 campsite와 130km의 trail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지난 7월 허드슨 산악회의 Cordillera Huayhuash Trekking 원정에 합류하여 '고진감래'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원정대(10명)는 가이드 1명과 보조 7명, Mule(노새) 20마리, Horse 4마리의 지원을 받으며 10여일 동안 고산 야영생활을 했습니다. 위 사진처럼 광대하고 신비한 미경 속을 종일 걷다 보면 가끔은 가슴

이 벅차오르는 경험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빙하 하부가 녹아버린 설산을 보면서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실감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친 후 Huaraz로 돌아와 가이드 및 지원조와 통돼지 요리를 함께 나누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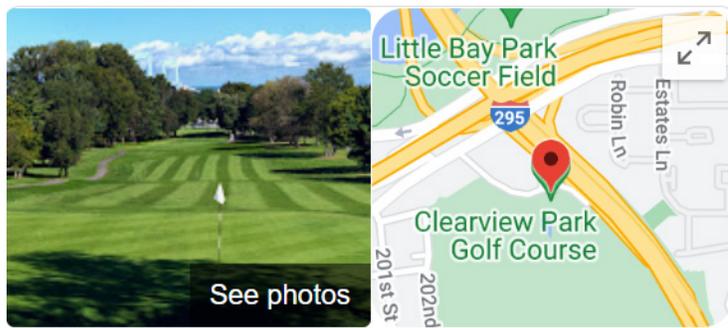
저희 부부가 70대 중반, 다른 대원들은 40-60대 후반으로, 저희가 항상 배려의 대상이었기에 남다른 소회도 느끼고 있으며, 산소가 희박한 고산에서 열흘을 trekking 하는 것이 70대 중반의 체력에는 큰 부담이었지만 일상에서 보기 힘든 장엄한 미경을 직접 경험한 것은 지금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홍종만 (공대64)

9월 골프대회는 Clearview GC에서

9월에는 오랜만에 New York의 대표적인 public course인 Clearview에서 shotgun으로 모입니다. 일정을 확인해보시고 일주일 전인 9월 5일까지는 등록(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9월 15일 (목요일) 12시 (11시까지 도착바랍니다.)
 장소: Clearview Golf Club
 202-12 Willets Point Blvd, Queens, NY 11360
 티박스: 선호하는 tee box (white/gold/red)를 등록시 알려주세요
 회비: \$120
 문의: 김정필 (201-965-7759)



노년의 자산관리 - Zoom Seminar

골든클럽에서는 아래와 같이 4번째 비대면 세미나를 열게되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제목: 노년의 자산관리
 - 부동산, 금융자산등의 자산 투자에 관한 소고
 강사: 김병순 (공인회계사)
 날짜: 9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9시30분
 Zoom: ID: 9922258953 Passcode: 577679
 zoom.us 로 들어가서 위의 ID와 passcode를 입력하여 입장합니다.

권태진 회원 연락처 변경

새 전화번호 516-736-9819
 taekounne@gmail.com

골든클럽의 한국여행을 앞두고

■ 손대홍 (미대79)

“정말 가게 될까” 하고 생각하던 골든클럽의 한국여행이 이제 정말 턱 밑까지 왔다고 할까요? 9월 18일 JFK를 출발하는 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회원과 가족들 포함 총30명이 한국여행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10일간의 여행을 위한 모든 일정이 짜여졌으며, 이에 따른 호텔, 식당, 버스 등의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 숙박을 하고자 호암교수회관에 첫날의 숙박을 예약했는데 리노베이션 공사가 결정이 되었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하게 호텔을 변경하였고,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벅찬 일정이 있어 KTX를 타는 일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식당도 최근에 평판이 나빠진 곳은 지역의 다른 인기 식당으로 변경하였고 한국의 검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입국을 위한 안내서를 만드느라 꼬박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팽팽의 한상 식당에서 열린 한국 방문을 위한 설명회에서는 무려 2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하게 되는 관광지, 이동거리, 체류할 호텔정보, 들르게 되는 모든 식당과 메뉴 소개까지 담긴 57 페이지의 일정표를 준비하였고 출발 전 PCR 검사방법, 전자비자 신청, 백신접종정보를 신고하는 Q-Code 등록, 한국 입국 후 PCR 검사방법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설명드리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참가하시는 동문들의 연세를 고려해서 이동하는 모든 루트를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종합병원과 응급실 리스트를 준비하고 체류지 별 전문병원들의 리스트도 모두 확보해 놓았습니다. 한 분의 동문께서는 청진기와 혈압계를 휴대하시고 참가자분들을 위한 자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한결 마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도와서 참가자들을 돕게 될 진행요원 1명과 가이드 1명이 전 여행과정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COVID-19 상황이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 여행이 시작되는 9월 중순부터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한국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많은 즐거움과 추억으로 회자되어 앞으로 골든클럽의 여행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8월 5일 손대홍 회원은 '한국여행' 참가회원을 위한 안내행사를 열고 상세일정 및 준비사항 등 궁금한 항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김익성 회원 Age-Shoot



뉴욕동창회에서는 8월 20일 Rockland Lake State Park에서 제 43대 이사회 및 आयु회를 개최하고 회장 및 임원 인준, 회계보고 및 총회준비, 장학금 신청안내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과 가족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 12일 지난 겨울 발목 부상 이후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요양 중이신 이준행 회장님을 찾아 뵙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회장님 옆으로 홍종만, 손대홍, 민준기 회원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골프에서, 자기 나이와 같거나 더 적은 스코어를 치는 것을 Age shooting 이라 하는데 몇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 1, Certified full length golf course, minimum 6,300 yards
- 2, No mulligan
- 3, No touch
- 4, No gimme

지금까지 최연소 기록은 1975년, Pro-golfer Bob Hamilton 이 59세 때 Hamilton Golf Club, Evansville, IN에서의 기록이 유지되고 있어 젊을수록 가능성이 희박하고, 80대 골퍼들이 도전해 볼만한 기록으로, 지난 8월 11일 Valley Brook Golf Course에서 87세의 김익성 회원이 86을 치셨기에 축하드리며 기념패를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골든클럽 내의 Age-Shooter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덕, 오유섭, 한태진, 한영수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금 신청

신청자격 : 서울대 출신 유학생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지역에 위치한 위치한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 또는 뉴욕 지역 동창회 회원의 배우자 또는 회원의 자녀, 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한 : 2022. 10. 31
 장학금 금액 : 각 \$3,000
 선발인원: 5명 내외
 발표일 : 2022. 11. 30
 신청서류제출 : SNUAA-NY(Young Chun Kum)
 53 Fraser Street, Staten Island, NY 10314
 문의사항 : 장학위원회 718-791-4397 snuaany@gmail.com

신청서류 :

1. 신청서 (정해진 양식)
2. 이력서 (Resume)
3. 자기 소개서 (Personal Introduction Statement)
4. 교수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5. 지난학기 성적증명서 (Scholastic Transcript)
6. 부모님의 (혹은 자신의) 2021년도 소득세 신고서

뉴욕동문회 회장: 김영천

장학위원장 조상근

8월 골프대회 보고

하계 휴가 등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참가하여 Tee box 에 관계없이 시상을 진행하였다. 그린의 관리가 양호하고 비교적 거리가 짧아서 성적들이 양호한 편이었다.

날짜: 8월 11일 목요일 낮 11시

장소: Valley Brook Golf Club, Rivervale, NJ

참가인원: 30명

입상자:

상	상금	이름	Gros	Net	Over
1등	60	최준희	85	15	-15
2등	40	김익성	86	16	-8
2등	40	홍종만	94	24	-8
3등	20	임창우	89	19	-7
3등	20	성기로	88	18	-5
3등	20	강에드	85	15	-4
3등	20	오순문	97	27	-4
3등	20	이용대	88	18	-4
4등	20	안용희	32	34	-2

경비정산: 총수입 3,600
총지출 3,548
잔액 52



Tee off 전 Valley Brook Golf Club에서



이번 대회에 참석한 여성회원 8명과 함께

일본 폼하하기

■ 최진영 (문리대 55)

지난 2-3년간 이민진 씨의 소설 파친코 (Pachinko)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욕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이 소설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분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한국의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음은 독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에게 가한 극심한 식민 정책과 편견들을 이 소설은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 한일 관계, 왜 주인공들이 이름을 모두 성경의 이름을 갖고 있고, 모두 평양에서 왔는지를 십구세기의 기독교의 도래와 연결시켜 말했고, 그들이 왜 오사카로 갔는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청중은 뒤편 백인들이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점점 부상하고 있는 반일 정서에서 보면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일본을 비난하고 폼하하는 정도가 아무리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지지 않았고, 첨예한 독도 문제까지 겹쳐 있다 해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이면서 지금까지 9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20세기 후반에는 토요다 와 소니가 전 세계를 점유하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창시자인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라면 만드는 기술도 일본에서 배워 온 것임은 다 알려진 사

실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저를 친일파로 비방하지는 마십시오. 저희 할 아버님은 한국사람으로 최초의 몇 분 중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신 후 바로 만주로 가서 반일 독립운동가로 활약하셨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만주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할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본을 비판하고 폼하할 때 과도하게, 어찌 보면 “용용 죽겠지!”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일부 한국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일본을 겨냥한 것 같은 말입니다.

지나치게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은 이웃 국가 간의 국민으로서, 특히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선진국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요즘, 일본에 대한 지나친 비하는 한국의 위상을 오히려 저하시킨다고 봅니다.

대학에 다닐 때 저의 영문과 한 교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 때, 영국, 미국과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도 동경제대에서는 Shakespeare, Milton, Walt Whitman 등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YOUNG AT HEART

■ 정도현(공대57)

"Young at Heart" is the theme song of 1953 movie Young at Heart, starring Doris Day and Frank Sinatra. The song sung by Sinatra somehow evokes the sentimental journey of my youth years but also resonate with recent state of my mind. Before I continue further, I like to loop through last few years of my life to see how I arrived where I am now. It seems like yesterday when I told tearful "Good-Bye" to my wife in her dying bed. But it happened 6 years ago. Time passes by "Blink of an Eye". As an aging widower, my life had been stuck in limbo. For a couple of years of her passing, I felt an overwhelming "Sadness & Guilt", however I was not lonely because, in my mind, she was still with me.

As time went by, my memories of her began to fade and I was getting into a new phase called "Loneliness". My three children live nearby. I have a few close friends but what I needed was a "Some One to Lean On". As a Gershwin song said -- "I am a little Lamb who Lost in the Wood -- I need Some One to Watch Over Me." I flirted with a lady, but it was somehow awkward not having a genuine affection and sometime felt silly. In fact, the lady happened to die during our courtship with a brain aneurysm. How Strange !

About a year and half ago, during the height of Pandemic, a close friend of mine and his wife introduced a lady who happened to live in same town Greenwich, Ct. She lost her husband few years ago. During our first get together I immediately noticed that her manner and make-up is quite refreshing. She is thin but looks healthy. Her outfit looks simple and natural. She wears no facial make-up that is quite unusual for normally beauty-conscious Korean ladies. She carries all her wrinkles as if they are "Badges of Honor" of a "Life well lived" as a stay home mother supporting husband and raising kids. It also brings the images of two Hollywood ladies -- aging Audrey Hepburn, without any make up, comforting a suffering Sub-Saharan girl and Helen Mirren, well into her late seventies, unafraid of showing her mature beauty and sultry sexiness.

Furthermore, as our conversation advanced, I was amazed by the intellectual mind set of her which is authentic and non-posturing. Also, she is interested in my creative works as an architect as well as amused by my persona as an "Out-

of-Control Human Wrecking Ball". We met about every day. Our conversation does not have any boundaries. We joked a lot, mostly self-deprecating stuff. I felt a genuine affection. We are octogenarians but act like spoiled children. She handles life matters with a magical "Soft Touch" but with effective persuasion. Though our bodies grow old, our minds go reverse. There is no denying that I am emotionally trapped -- I know there's "No Escape".

Sam Ullman, a poet, wrote a poem titled "Youth" --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s a State of Mind -- when your Spirit is covered with Cynicism, then you are grown Old, even at the age of 20 -- but you catch the Spirit of Optimism, you may die young at 80."

The Song "Young at Heart" stats with following phrase -- Fairy Tales can come True, it can happen to you, if "You are Young at Heart." -- Indeed !!



'Young at Heart's at SNUAA NY picnic

Sincere congratulations to Brother Chung from The Editors!!
*"And if you should survive to a hundred and five
 Look at all you'll derive out of bein' alive
 And here is the best part, you have a head start
 If you are among the very young at heart"*

Peru Trekking

■ 홍종만 (공대64)

Andes 산맥은 Venezuela에서 Argentina까지 8,900km, 태평양 연안을 따라 7개국에 걸쳐 있는데, Peru 북부에 6,000m급 거봉들이 많이 모여 있어, 설산, 빙하, 호수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Cordillera Huayhuash는 4,000-5,000m 고도를 따라 12일 동안 능선을 넘나들며 130km를 걷는 'One of the most spectacular trekking circuits in the Andes'로 알려져 있다.



7월 13일 밤 JFK를 출발, 14일 새벽 일행 10명이 Lima에 도착하여 Diamox (고소적응약)을 먹고 준비된 대절버스에 승차, 8시간 걸려 Trekking 거점도시 Huaraz hotel에 여장을 풀고 현지 가이드와 저녁을 함께하며 고소적응 훈련 및 trekking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첫날은 고소적응 훈련을 겸하여 3,500m 고지에 위치한 Pre-Inca 유적지를 걸어서 방문하고 둘째 날은 4,500m 고지에 자리한 Lake Chulup까지 산행하며 고소적응 훈련을 마쳤다.

다음날 가이드와 5시간 동안 버스로 산속 깊은 곳을 찾아 들어 Cuartelwain 캠프장(4,170m)에 도착하니, 우리가 목을 tent, Dining tent, Kitchen등이 설치되어 있고, Mule(노새) 20마리,



Horse 4마리를 관리할 보조 7명이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고소적응에 좋다는 따끈한 코카차를 권한다. 둘러보니 복슬강아지 3마리도 우리를 반가워하며 애교를 부리는 사이 보조들이 우리의 Cargo bag을 차에서 내려 각자 tent로 옮겨주며 색깔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식 끈을 3개씩 Tent와 Cargo bag에 부착해준다.

저녁 6시 야영 첫 저녁식사에 스프와 닭고기 요리 등 이것저것 준비됐지만, 고소에서는 비등점이 낮아(80C) 설 익어 입안이 짹짹하여 조금 먹고 7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가이드가 텐트를 돌며 따끈한 코카차를 권하는 wake-up time이다. 가지고 다닐 개인 배낭만 챙기고 자고 난 침구류는 정리하여 Cargo bag에 넣고 7시에 식당 텐트에서 아침을 마치는 대로 가이드를 따라 8시에 출발한다. 텐트, Cargo bag, 식당, Kitchen 등 모든 장비는 보조 7명이 정리하여 Mule 20마리에 나누어 싣고 한두 시간 늦게 출발하지만, 우리가 언덕을 향하여 천천히 오르고 있을 때 우리를 지나쳐 부지런히 달려가 다음 캠프장에 caravan을 설치하고 우리가 도착하면 손발을 씻으라고 뜨거운 물도 준비해 준다.

캠프장 주변은 설산과 호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곳들이지만 Glacier 하단부가 녹아 없어진 설산을 보면서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둘째 날 저녁은 빙하 호수에 많이 서식하는 Rainbow trout 특미 추가요리가 입맛을 돋우었다. 무릎 정도의 개울에서 맨손으로 잡는데, 분홍색 띠를 두른 Rainbow trout이다.

우리 일행 10명 중 나와 집사람이 70대 중반, 다른 대원들은 40에서 60대 말까지 비교적 젊은 편이어서 우리 trek team이 언덕을 향하여 경사면을 오를 때 나와 집사람이 제일 힘들고 뒤쳐지는 편으로, 우리 caravan의 horse 4마리 중 2마리는 camp 이동할 때 Mule 20마리를 앞뒤에서 몰이하고, 2마리는 Ambulance 대응으로 뒤처지고 힘들어하는 대원을 언덕 위까지 실어 나르는데 주로 내가 단



끝이었다.

낮에 해가 나면 보통 60-70F까지 올라가다가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 새벽에는 영하로 내려가 아침에는 옷을 두툼하게 입었다가 출발할 때쯤 갈아입는다. 며칠 지나 보니, 첫 캠프장에서 보았던 강아지들과는 다른 것들이 주위에 있기에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야생 강아지들인데 trekker를 따라 캠프장을 오가기도 하고 야간에는 여우 등 들짐승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어젯밤 심하게 짖어내던 불침번 강아지들이 이해되기도 하였다.

닷새가 되던 날, 작은 파티를 준비한다고 해서 나가보니 나무라곤 전혀 없는 목초지 웅덩이에 마른 말뚱을 모아 다가 숯불을 지피고 캠프파이어 탑을 만들고 그 위에 Porkchop BBQ를 굽는데 여성 대



원들은 냄새가 싫다고 하여 남성들이 숯불 냄새로 유추하며 푸짐하게 먹었고 그날은 페루 와인도 준비되어 있었다.

다음 야영지 Viconga 호수에는 4,400m 고지에 노천온천이 있어 따뜻한 온천물에 피로를 풀고 간단한 빨래도 하면서 하루 더 쉬었는데, 대원 한 분의 생일을 맞아 축하 케익을 만들고 디저트까지 준비한 Cook의 솜씨에 감탄하였다.

Cook이 나름대로 준비해온 식품에 정성을 곁들여 Pancake도 만들고 Pasta 요리도 내놓지만 가끔은 우리식으로 김치찌개, 멸치 미역국으로 입맛을 돋우려고 애쓰는데 고산에서 제일 골칫거리는 물과 바뀐 음식에서 오는 설사다. 설사약도 먹고 조심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급해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고 펜츠를 적시고 당황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찌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식사 후 출발, 서너 시간 걸거나 말 타고 언덕에 올라 멋진 설산 풍경 사진에 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고 텐트 속에 들어가면 금세 꿈나라다. 같은 일상을 반복



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캠핑 저녁이 되어, 가이드에게 부탁하여 Huaraz 시내 식당에 통 돼지 요리를 주문하고, 다음날 저녁 가이드와 보조 함께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를 자축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눌 때, Ambulance 마부에게 사례비를 쥐여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고, 남은 음식도 마부들이 나누어 가져갔다.

호텔로 돌아와 지난 2주간을 돌이켜 보니, 70대 후반 나이에 고산 trekking은 상당히 무리였으며 앞으로는 이번 trekking을 마지막으로 나이에 걸맞고 체력이 허용하는 즐거운 산행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Lima를 떠나 Inca 제국의 수도였으며 유적지인 Cusco에 이를 머물면서 Machupicchu를 관광했는데 남미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고학 유적지로, 페루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며, 마추픽추의 위치는 잉카제국의 군사기밀이었고, 거대한 강과 절벽, 산들이 이 요새를 지키는 천연방어막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 (Pic F)

3주간의 Peru 여행 마지막 날 페루 전통 음식을 맛있게 들고, 그동안 순박하고 호의적인 페루인들과 가까이 지낸 좋은 경험을 기억하며 JFK 행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회원 명단 (114명 / 2022-8-24)

강교숙	김병순	최숙희	오유섭	이준행	최병우
강에드	김상만	박희병	오인석	이준희	최수용
강영선	김승호	배상규	유규환	이행순	최순채
계동휘	김영덕	성기로	유무영	이흥빈	최진희
고애자	김영만	손갑수	윤선구	임도혁	최진영
곽상준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임창우	최철용
곽선섭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임호순	최학주
곽승용	김인형	남중현	이강홍	정도현	추재욱
구달희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정수일	한영수
권정덕/	김종울	송근수	이상무	조달훈/	한용오
홍선경	김창수	송웅길/	이 준	조상자	한태진/
권영대	김치갑	송현자	이대연	정해민	안용희
권태전	김태일	송학린	이대영	조상근	허용웅
금영천	김한중	송혜순	이범선	주상선	허유선
김광수	김현중	신진식	이수호	주재양	홍사만
김광현	노용면	신응남	이용대	진봉일	홍지표
김동건	민준기	양인회	이전구	천병수/	홍지복
김문경	박기환	오순문	이종대	천종화	홍종만/
김문언	박준구/	오용호	이종석	최구진	홍예경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8-24)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Atrium of Tenafly (81명 참가)
4월	14일(목)	Hiking - Lake Skannatati -취소
	21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8명 참가)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Walkkill (39명 참가)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18명 참가)
6월	9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 참가)
	16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50명 참가)
	23일(목)	Zoom seminar (슬기로운 supermarket)
7월	14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7명 참가)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취소)
8월	11일(목)	Golf Outing - Valley Brooks (30명 참가)
	20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80명 참가)
9월	15일(목)	Golf Outing- Clearview, NY
	18-30일	한국방문여행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20일(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3일(목)	Golf Outing
12월	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90명 / \$9000/ 2022-8-24)

강교숙	김문경	김한중	송웅길	이강홍	임창우	최진영
강에드	김문언	김현중	송현자	이대연	임호순	최철용
강영선	김병순	민준기	송혜순	이대영	조달훈	한영수
고애자	김상만	박기환	송학린	이민제	조승자	한용오
권정덕	김승호	박희병	신응남	이상무	진봉일	한태진
권태전	김영만	배상규	신진식	이용대	정도현	안용희
계동휘	김우영	성기로	오순문	이전구	정해민	허용웅
곽선섭	김익성	손갑수	오용호	이종대	주재양	홍선경
곽승용	김종울	손대홍	오유섭	이종석	천병수	홍종만
금영천	김창수	남중현	오인석	이 준	천종화	홍예경
김광수	김태일	손경택	유규환	이행순	최순채	홍지복
김광현	김치갑	손옥화	윤선구	이흥빈	최순채	홍지복
김동건	김정필	송근수	윤현남	임도혁	최준희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31명 / \$17600 / 2022-8-24)

강에드 300	김종울 200	송혜순 200	윤현남 500	임호순 300
곽선섭 100	김한중 300	신응남 500	이강홍 200	정해민 500
곽승용 100	박준구 1000	신진식 300	이전구 1000	천병수 300
권정덕 200	송학린 1000	오용호 300	이종대 200	최철용 300
금영천 300	성기로 300	오유섭 100	이준행 3000	한용오 200
김승호 2000	손경택 1000	유규환 2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동창회 10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5명 / \$1000 / 2022-8-24)

김치갑	송혜순	이민제	임창우	허유선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 2022-8-26)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Google Chrome 활용요령; 매주 화요일 10-12시
 Google Meet로 진행
 문의, 홍종만 646-3426-2667
 MS PowerPoint, 영상제작; 매주 토요일 10-12시
 Zoom 화상강의로 진행
 문의, 유규환 201-566-3665

9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광현 (미대57) 홍예경 (가족)
 송학린 (법대59)
 이행순 (미대60)
 최순채 (의대60)
 허용웅 (상대63)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